

47세에 의사 된 자동차 정비공

20년 이상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던 중년 남성이 47세 나이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간 때문에 의사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간호사라도 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지난 2015년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비소를 팔고 대출도 받았지만 부인과 세 명의 자녀를 둔 그의

클리브랜드 지역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칼 올램비(47·사진)는 많은 흑인 아이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나섰다. 불과 16세 나이에 그가 취업한 곳은 한 자동차 부품점. 그는 이때부터 자동차 정비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곧바로 정비소를 차렸다. 이후 18년 동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그의 행로가 바뀐 것은 34세에 지역 내 야간 대학에 입학하면서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족과 주위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는 어려움을 헤치고 결국 의사의 꿈을 이뤘다.

같은 현재 클리브랜드 클리닉 애크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다. 특히 현지언론과 병원 측은 칼이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것은 물론 많지않은 흑인 의사로서 젊은이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손님들이 늘면서 정비소 규모가 커지자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위해 대학에 갔는데 생물학 필수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린시절 꿈에 불이 켜졌다.”고 회상했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은 다름아닌 의사였다.

같은 “나의 사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40세에 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긴 시

‘19마리 달마시안 새끼’ 탄생, 세계 신기록



호주에서 달마시안 19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났다.

지난 6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앨버리에서 달마시안 ‘멜로디’가 19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며 이 부문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7년 7월 호주에서 태어난 18마리가 최고기록이었다. 당시 세 살 된 마일리는 암컷 12마리와 수컷 6마리 등 18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멜로디’는 첫 출산에서 세계 기록을 작성했다. 견주 브리더 펠리사 오브라이언은 “멜로디는 9마리 암컷과 10마리 수컷을 출산했다. 임신 중 무게가 15kg나 불어나 새끼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신기록을 세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새끼들이 심지어 모두 덩치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은 19마리의 새끼들에게 ‘미녀와 야수’의 벨, ‘라이언킹’의 킴바 등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 주었다.

출산에 참여한 4명의 수의사 중 한 명인 크리스 월마란스는 “이번 출산이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한 마리씩 받아내고 닦아주는 작업을 무한 반복했다.”며 웃었다. 이어 온몸에 뚜렷한 반점이 특징인 달마시안은 출산 직후에는 흰색 털로 뒤덮여 있으나 자라면서 반점이 짙어진다고 설명했다.

신기록을 세운 19마리 달마시안 새끼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각지에서는 입양 문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가의 신상 원피스에 쏟아지는 조롱

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의류 및 패션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쇼핑몰 아소스(ASOS) 제품이 또다시 놀림거리로 전락했다. 미러 등 현지매체는 지난 28일 고가의 아소스의 신상품에 ‘양과 자루’ 같다는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하는 ‘엘리사 포피’의 신상 원피스를 소개했다. ‘코르셋’ 디자인의 이 슬립 원피스는 빨간 망사 재질로 흡사 양과망을 연상시킨다.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입기도 불편할 뿐더러, 유·수분 흡수 등 속옷으로서의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제조사인 엘리사 포피 역시 제품 소개에서 이 옷을 입기 전 몸에 ‘과우더’를 바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기존의 유명 디자이너는 물론 신진 디자이너의 판로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아소스는 이전에도 실제 입을 수 있을까 싶은 디자인의 옷들을 선보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지난 7월에는 2019 S/S(봄여름) 신상품으로 남성용 크롭톱, 일명 배꼽티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3월에도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용 투명 바지를 출시해 비웃음을 샀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아소스가 이번에는 ‘양과망’ 원피스로 또 한 번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애초 350파운드(약 430달러)에 출시됐던 이 원피스는 소비자들의 조롱 속에 결국 210파운드(약 260달러)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태다. 아소스 측은 여기에 15% 할인쿠폰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옷 위에 일반 원피스처럼 착용해도 좋다는 듯 코디 제안도 무용지물, 반응은 냉담하다. SNS이용자들은 이 원피스를 살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 양과망 하나를 사오라며 끝없이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아소스는 최근 천연 라텍스 소재의 여성용 속옷 등을 생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